

제 199 호

연중 제24주일

1976. 9. 12.

숲 정 이

발행인	김 종 택
인쇄인	범 석 규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강론** ●



베드로의 고백

서 석 구 신부

오늘 복음 말씀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할니까?" 하고 물으셨을때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는 사람도 있고 예언자중의 한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했다. "자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하고 예수께서 다시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바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자 물으신 것이다. 만약 사도들의 대답이 어물 어물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다면 예수님은 실망이 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당시 유대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메시아를 세상의 정치적인 해방과 국가적 통치와 세속의 군주로 오실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결정적이고 회망적인 대답으로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써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 오신 보람을 느끼시며 마음놓고 십자가에 가실 수 있게 되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가장 큰 발견임과 동시에 이 세상에 당신의 제자가 자기를 알아볼 수 있는 기쁨으로 생각하신 것 같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고 무엇때문에 이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진실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신앙인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실로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은 엘리야 예언자.....하였지만 베드로는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알고나의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가 신앙고백으로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겸손되이 진실하게 모실때 주님은 나의 진실한 주님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 그의 용기와 연민,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는 목적까지 알아야 할 것이다.

세상은 온갖 거짓과 가짜들이 많다. 주님의 이름을 파는 허황된 미치광이 교주도 많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활도구로 주님 주님 한다면 그의 마음의 심장은 수술을 해야 하고 그의 눈은 맹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이 진실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필요하다.

(진안 천주교회 주임 신부)

□시대의 징표□



누이 보아라.

-누이야 내가 너를 권면(勸勉)하고 위로하노니 천당에서 서로 만나자.-

이 짙막한 글은 「피묻은 쌍백합」으로 알려진 동정부부(童貞夫婦)柳요한이李루갈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이다.

루갈다와 요한은 한창 젊은 나이에 그들의 신앙을 위해, 하느님께 의 약속(하원)을 지키기 위해 죽는 날까지 순결을 지켰다. 그들도 인간인지라, 아니 젊은이들인 지라 유혹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합심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버텼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박해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서로 권면했다.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리하여 5년의 신흠생활아닌 수도생활을 마치고 20의 꽃다운 나이로 장하게 숨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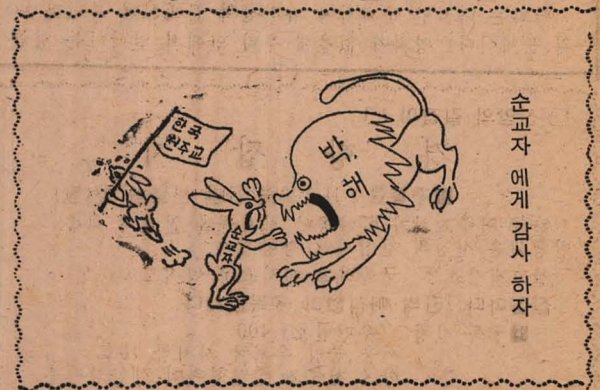
9월은 복자성월이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장한 이 고장의 순교자 루갈다와 요한이 아직도 복자위에 오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우리 후손들의 무능을 말함이다.

「모든 믿는자들의 위로자이시며 순교자들의 임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는 일찌기 불러오신 안배로 이 겨레에 복음을 알리시고 거룩한 순교의 피로 이 땅에 교회회를 세우셨나이다.

없드리어 간구하오니, 치명의 영광을 얻으신 동정부부 유요한과 이루갈다 및 동료순교자들의 그 업적을 세계에 높이 기리고 하느님의 용사들이 남긴 표양을 마음 깊이 새겨 본받고저 하오니, 그들이 하루빨리 복자의 반열(班列)에 오르게 하소서.

특히 유요한과 이루갈다는 부부의 계약을 맺었사오나 요셉과 마리아를 본받아 동정부부로서 세상에 드문 정덕의 꽃을 피웠사오니, 세속 향락을 쫓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표지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진 이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임을 알게하시어 주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소서. 우리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김재덕 주교께서 인준하신 동정부부 유요한과 이루갈다 및 동료 순교자들의 시복을 위한 기도문)

숲 정 이 산책



순교자에게 감사하자

사탄아, 물러가거라.

박 중 신 신부

■ 신부님, 요사이 듣자하니 예수교에서는 절름발이를 걷게하고, 귀머거리를 듣게하고, 자궁암 환자를 고쳐준다던데,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천주교회에서는 왜 그런 좋은 일을 하지 않아요? 신부님이 참된 예수님 제자라면 사소한 병 따위는 고쳐줄 능력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신부님, 저는 신부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느님의 대리자가 지저분한 돈에 기로 거룩한 입을 더럽히는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돈이 없는 분이예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제발 앞으로는 강론 때나 신자들 앞에서 돈 얘기만큼은 절대로 피해주십시오. 인심잃어요.

■ 신부님, 성당은 정말 딱딱하고 차겨워요.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나 바치려고하면 시끄럽구요. 저 혼자 조용히 기도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옛날 신부님들과 요새 신부님들 말씀이 너무 달라요. 하느님은 일구어언하는 분이가요?

■ 신부님, 공소에 오셨으면 성사나 주고 미사나 지내시지 연수회가 다 뭐예요? 밤이 길었어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우리도 쯤려요. 우리가 하루이틀 신자생활한 줄 아세요? 다음 방문 때부터는 성사, 미사부터 하시고 말씀은 시간 남으면 듣고 싶은 분들에게나 하십시오.

□ 신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울바로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세살 먹은 어린이가 성장을 중지하고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키도 크지

않고 머리로 발달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어린 자식이 불쌍할 뿐 아니라 그런 자식을 낳은 자신들의 신세 또한 비참할 것입니다. 믿음도 매일 매일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육체의 병만을 치료하는 분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읽은 탓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언제나 건강해야 하고, 혹시 병이 생겼다고 해도 병원에 가지 않아도 완쾌되어야 하고, 이번 아이는 꼭 아들이어야 하며, 내농사, 내장사는 틀림없이 잘 되어야 하고, 내 아들만큼은 대학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믿음의 냇가를 요구함으로써 하느님을 천하에 떨칠려는 중으로 부러먹으려해서는 안됩니다.

□ 교회에 대한 무관심, 나만 구령하면 된다는 이기심, 하느님 위에 돈을 섬기는 황금만능주의, 불평불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 질투, 헐뜯음, 자기만이 옳은 사람이라는 교만심 등이 교회를 타락시키는 요소들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모든 신자가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사탄이 물러가는 길이고, 사탄의 권세가 분쇄되고 하느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길입니다.

(임실천주교회 주임 신부)

□신간 안내□

평화...그러나 어디에?

저자 : 안니에 카지아티, 111면
성바오로 출판사 발행, 600원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이세계의 나라들중 완전히 평화를 갖춘 나라는 없다. 이세계 한 곳에서는 분쟁이 있고 혼란과 부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그러면 "평에서는 평화"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거짓이 아닐까? 평화는 내적인 문제이며 나 자신의 문제이며 주님과 나의 문제이다. 평화가 없을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은 무엇일까? 평화는 내적 정복이며, 우리가 남을 용서함으로써, 남에게 용서를 청함으로써, 그리고 성숙해짐으로써 얻을 수 있다. 현대세계 그리고 우리의 현실속에서 제시될 수 있는 평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만화형식으로 유추해 나가고 그 해답을 얻는다.

평화는 누구를 막론하고 알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한다. 내적 외적으로 평화가 결핍된 현대인들은 더욱더 평화를 갈망한다. 이러한 모든이에게 평화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음을 제시할 뿐 아니라 자신을 깊이 묵상케 해주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현실속에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 신앙의 길잡이 □

경향잡지

■구독료 : 月 200원 (1년 선불은 2천원)

한국 천주교회가 67년동안 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발행해온 신앙의 길잡이인 경향잡지.

알고계시죠? 구독하고 계시죠? 아직도.....?

집집마다 1권씩 빠짐없이 구독하십시오.

■구독 신청 : (우편번호) 100

서울 중앙 우체국 사서함 16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경향잡지부

□양서 안내□

解 放 神 學

-마테오 복음에서 본

값 1,200원 (216페이지)

日本 上智大學 教授 니콜라스 神父 (Rev. Adolfo Nicolas, S.J)께서 지난 6월 전주교구 사제 연수회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통역에는 明洞의 강우일 신부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프로세스 神父 지도 M.B.W 研修會 講議錄 (값 1,200원)

■發行 : 全州教區 司牧局 (전주시 서노송동 560-6)

□복자성월□

한국 교회의 첫 참수 치명자(斬首致命者)

—금제(禁祭)의 희생(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버)

김 영 구 신부

유교의 제례와 상장에절은 소위 사대부(士大夫)와 양반 계급에 속하는 한 질대 의무로서 4대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초상에는 빈잡무쌍한 온갖 제례식을 행하게 되어 있다. 유생들과 사대주의의 위정자들은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인 이 전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이라면 덮어 놓고 불효 막대한 행위로 규정지어 극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북경 주교의 전령은 제사 문체에 대하여는 이단이며 미신이라고 엄금했으나 유교에 대한 정면도전이지요, 충들의 과녁이 아닐 수 없었다.

이때 조선 교우들의 전진공경함은 말할 수 없어 양반 선비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창립하고 전교하여온 형편인데 이 전례문제 또한 큰 시련이자 시급성이 되었다. 주교의 교령이 전달되지 불과 1년에 진산(珍山) 장구동에 사는 진사 윤지충이 먼저 도전의 화살을 쏘았다.

지충은 분시 해남당의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여 호를 우옹(愚翁)이라 하였다. 그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김범우를 찾아가 성교 도리에 관한 책 두권을 빌렸다. 지충은 집에 돌아와 그 책들을 읽고 연구하다가 3년 후인 1786년 그는 고종사촌인 정약전(丁若誼)에게 가서 책으로 연구한 성교 도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드디어 입교하여 바오로란 교명으로 영세하였다.

지충은 믿음과 수계에 모범적인 신자가 되어 의사촌인 권상연과 가족들을 전부 입교시켰다. 그러나 지충은 김범우 사건이 있는 뒤에 가지고 있던 성교서적 몇권을 불사르고 은밀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표면에 나서 전교하는 데는 삼갔다. 지충은 1790년 서울로 가서 거기서 비로소 북경 주교의(제사 금지 교령)이야기를 듣게되어 집에 돌아와 안치해 둔 위패들을 불살라 땅에 묻어버리고 일체 제례를 폐지하였다.

그러자 이듬해 여름에 모친(권씨)상을 당하여 극히 난처한 입장이었지만 모친 역시 열심한 분으로서 입증 때 아들에게 자기 죽은 뒤에 일체 유교식 상장에절을 폐지하라는 유언을 남겼던 것이다. 지충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킴으로써 효성을 다했다. 의사촌 권상연과 상의하고 유교식 예절을 폐하고 조객들을 맞아 상장을 치루었다. 상장에식을 전폐한 것이 말쑥되어 조객들과 문중에서는 비방과 원망과 욕설이 마구 쏟아져 나왔고 불효막대한 사문난적(斯文亂賊)이란 낙인을 찍기에 서슴치 않았다. 1791년 12월 7일 오후 3시에 전주에서 참수 치명하신 두분은 바로 서술이 푸르른 국왕의 정식 사형언도도 순교했을 뿐 아니라 참형당한 후에도 많은 기적이 나타나기까지 했던 것이다.

이것이 전한국 교회사 첫 페이지를 장식한 첫 참수 치명의 순교 사실이다. 지금까지 김범우를 첫 순교자로 알고 있으나 김 범우(도마)는 여러 동지들과 종교행사를 집행하는 도중에 형조판서 김희환에게 잡혀서 모진 혹형과 고문에 으스스한 몸으로 단양땅에 유배된지 수개월 후에 그 혹형 여독으로 선종하신 분이시다. 이 두 순교자의 유명한 신문기와 고백서는 너무나 유명한 호교론(護教論)이다. (호남 발전사 26-64페이지 참조)

요심이 (163) 김병오

분도, 너는 크면 무엇이 되겠니

권력 있는 높은 사람

좋았어! 요심이 너는?

칼로 목이 잘려죽는 사형수가 되겠어요

너, 미쳤니?

진리를위하여 옳은일을 하다 죽은 치명자가 되겠어요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 금 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013
김 원 준(야고버)

★ 교우 여러분께 특별활인 우대★

혹·칼라·출사환영

현대 사진관

전주 역전 오거리
전화 ③ 5289
김 금 순 (테레사)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6219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등 압(모이세)

금암동 ③5614 군산 3032
다가동 ③4342 부안 736
진 동 ②2143 정읍 2157
★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교우들의 선물 센터

전자, 새살림, 기념품, 완구

아세아 종합 스토아



강영욱 (로모알드)
남문 신탁은행 앞
전화 ④4007, ②7007

☆ 이(齒牙)는 오복(五福)의 요건 ☆

수석(水石) 치과 의원

원장 김 현 (아오스덕)

전주시 중앙동 3가42-1
〈박 소아과〉 앞
전화 ② 1665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공지사항 *

1. 사목교서 연수회: ① 신부, 수녀(16일(목) 오전 11시), ② 사도회 임원(18일(토) 오후 3시)
 2. 전주교구 평협 정기총회(19일(일)-사도회 임원 연수회 후에 합, 가톨릭 센터)
 3. 조성호 교구 평협 회장이 전국 평협 부회장에 재선되었습니다. 한국평협(총재 金在德주교)은 9차 총회에서 연수회, 임원개선(회장 金基哲), 예산집의도 하고, "3.1사건에 대한 3.12주교단 성명을 전폭 지지하며, 구속된 애국 인사와 목자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 ※ 불우 이웃 돕기: 수류 분당 김상인(루카)씨가 전주교도소 제조소에 척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 딱한 처지를 교도관 차동주(라우렌시오)씨가 동분 서주하며 주선하였다. 이러한 차동주씨의 형제애에 교구내 몇몇 사제들이 성금 90,500원을 모아 전달하였다.
- 김재덕 주교, 김영구, 김반석, 김영일, 권영균, 안복진, 김정원, 김병환 신부(각 5천원), 범석규, 배영근, 김영신, 한봉섭 신부(각 1만원), 김환철 신부(3천원), 서석기 신부(2천원), 김영태, 유장훈, 박종근, 법선배, 김기수 신부(각 1천원); 이상호 신부(5백원)

(중앙)

전화 ③3651 임 신부 이 대 권
③3874 수석보좌관 신부 한 불 권
사 도 회 장 이 상 용

★ 환영! 이종원(토마스) 신부님 부임 ★

1. 꾸리아화: 오늘 오후 2시
2. 예비자 교리 개강: 오늘부터 ※ 중·고등학생 (토-오후 미사후, 주일-오전 8시), 일반(주일-10시미사후, 화·목-오전 10시 혹은 오후 8시)
노인(주일-10시미사후, 화-오전 10시)
3. 미사 시간 변경: 토요일 (5시→4시반, 6시반→6시)
4. 35사단 위문 미사에 큰 협조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치명자 재대 건립 헌금: 김요한 (1,000원)
누계 38,300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사도 회 장 조 해 철

1. 신용 협동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노송 성우회 첫 회합!: 오늘 공식 미사후
◎ 뜻있는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3. 교무금을 완납합니다. 다음날부터 전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아직 완납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달안에 내주세요.>
4. 애령회 간부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5. 누갈다 모지 재대 건립 헌금
박이규(루비나)-5,000원 ◎ 감사 합니다.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 장 김 용 환

1.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성당 건립 성금 신입: 임혜경, 박가다, 김복술, 이공래, 장옥남(각 2만원), 신중식, 김오만, 송정숙, 최효순, 채희산, 박주옥, 이외순(각 1만원) 장옥서 정순자(각 3천원), 김용식, 김정숙, 각 3만원)
계 236,000원 누계 2,936,500원

(북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 장 조 성 호

1. 성우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 회원 전원 참석 바람.
2. 9월은 76년 결산의 달-10월부터 77년도 예산 집행 을 하오니 교무금이 미납되신 분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3. ■ 주일금 배가 운동 ■ 일주일간의 영육간 많은 은혜 에 감사하며 은혜를 주시라고 정성스럽게 주일헌금 을 봉헌합니다.
4. 누갈다 모지 재대 건립 헌금: 익명(10,000원)
◎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 현 태
사도 회 장 박 장 춘

1. 신용 협동 조합 미사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2. 반회합: 21일(화)-9만, 22일(수)-10만, 23일(목)-11만, 24일(금)-12만
3. 도장 공사 헌금 신입자(제5반): 박창춘(3만원)김한기, 최기춘(각 1만원), 엄영환, 유금중, 이양환, 황금순(각 5천원), 김한덕, 김계순, 김수임(각 3천원) 김학순, 한원석(각 2천원), 김공임, 송용호, 추영옥 공수천(각 1천원)
4. ★축 결혼★19일(일) 12시
임영호(아오스당)군, 강명순 양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 장 양 윤 모

1. 자모회: 10시 미사후
2. 성 가정회: 오늘 나바위 성지 참배
3. 장우회: 오늘 저녁 미사후
4. 가족끼리 기도 드리기 장려
5. 예비자 등록을 바랍니다.

교구비 납부 현황 (1975.10.1-76.8.25)

분 당	76년 할당액	75년 미수액	납 부 액	미수잔액	분 당	76년 할당액	75년 미수액	납 부 액	미수잔액		
중 전 덕 복	양 동 진 자	1,988,000	-	900,000	1,088,000	임 남 순 정	실 원 창 음	236,000	-	236,000	완
		1,904,000	290,000	1,300,000	894,000			556,000	463,980	100,000	919,980
		751,000	193,000	770,000	174,000			83,000	121,640	204,640	완
		1,029,000	176,000	500,000	705,000			806,000	442,000	450,000	798,000
서 노 문 월	학 송 동 동 용 명	890,000	200,000	720,000	370,000	신 태 고 부 김	인 창 안 제	457,000	400,100	400,000	457,100
		1,001,000	1,036,000	377,740	1,659,260			278,000	-	278,000	완
		1,390,000	89,000	900,000	579,000			570,000	-	-	570,000
		1,182,000	563,326	850,000	895,326			820,000	749,000	0,000	569,000
중 창 주 삼	인 동 동 동 례	611,000	-	611,000	완	수 대 합 황	류 야 열 등	209,000	-	1,209,000	완
		1,321,000	-	1,000,000	321,000			139,000	-	139,000	완
		737,000	159,000	896,000	완			778,000	935,950	700,000	1,013,950
		626,000	384,000	510,000	500,000			209,000	-	209,000	완
고 전 무 장	산 안 주 계	417,000	-	397,800	19,200	화 여 금	산 산 산	348,000	-	348,000	완
		542,000	164,000	542,000	164,000			334,000	-	208,000	54,000
		195,000	-	195,000	완			445,000	451,000	275,000	621,000
		487,000	392,000	340,000	539,000						